

한국과 일본의 실과 및 기술·가정과교육의 역사적 변천 비교

박 순 자* · 신 상 옥**

김포대학 패션디자인과* · 중앙대학교 가정교육과**

Comparative Study on Historical Changes of Practical Arts Education and Technology-Home Economics Education in Korea and Japan

Park, Soon-Ja* · Shin, Sang-Ok**

*Department of Fashion Design Kimpo College**
*Department of Home Economics Education Chung-Ang University***

Abstract

This dissertation is a comparative study on Practical Arts (Home Economics) Education and Technology-Home Economics Education of Korea and Japan. I established two research objectives to conduct the research: To understand the differences in historical changes in Practical Arts Education and Technology-Home Economics of the two countries. And to grope for the new direction of Home Economics Education.

Research findings are as follows:

Japan was also ahead of Korea for about two decades in terms of putting Home Economics Education in practice at elementary schools.

Practical Arts Education started to emerge in elementary school system in 1955, which had been originated in vocational education before the year 1945 in Korea. However, from the 3th curriculum Practical Arts Education Curriculum put emphasis on home lives.

Regarding the characteristics of education from the perspectives of historical changes at Korean junior-high schools after the year 1945, Home Economics Education had been regarded as "female subject" until the 1980s and was integrated into regular curricula for co-education in the middle of the 1990s, when the 6th Curriculum was activated.

Technology-Home Economics started to emerge in Japan in 1962, while the subject Home Economics Education was integrated into curricula for males in high school as well in 1989.

In the Korean 7th Curriculum, the combined subject Technology-Home Economics is divided into three categories. A remarkable difference from Japanese Technology-Home Economics is that Korean curriculum has no division between required and elective.

In conclusion, I observe that both Korean and Japanese curricula for Home Economics Education were originated in Confucianism. However, unlike Korean situation, current Japanese Home Economics Education takes a significant part as a continuing and required subject for both primary and secondary co-education.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최근 제7차 교육과정의 개편으로 가정교과에 큰 변화가 있는 지금 우리는 앞으로의 가정과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깊이 통찰해 볼 필요가 있다. 제7차 교육과정에서는 국민 공통 기본 교육기간으로 초등학교 5학년에서 고등학교 1학년까지의 10년간을 일련의 교육과정기간으로 설정하였으므로, 지금까지 중등교과로서의 가정은 초등과 연계성을 고려하여 고찰해보지 않으면 안 되는 시점에 있다. 이런 시점에서 가정과 연구자들은 가정과의 본질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한다. 또한 가정과교육의 철학을 세우기 위해서는 가정과교육의 성격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새로운 패러다임을 모색해 보아야 한다(유태명, 1996).

가정과(가정학)는 학문의 분류상 실천과학이라 일컬어지고 있다. 그러므로 가정교과의 목표는 실천가능하도록 진술되어야 한다. 그러나 가정학의 문제는 교과 목표와, 그것을 실천하기 위한 내용과 방법이 일치하지 않는데 있다고 주장되고 있다. 즉 교육목표는 형이상학적으로 진술되어지는 것이 일반적인 반면,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교육내용과 방법은 그렇지 않은 데서 오는 이들간의 불일치에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정교과의 교육목표와 교육내용의 조직과 선정, 교육방법의 문제에 통일이 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또 가정과교육의 보다 나은 발전을 위해서는 외국의 가정과 교육과정과 실행 상황을 살펴보고 그것으로부터 개선을 위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가정과의 역사적 변천을 일본과 비교해 봄으로써 시사점을 얻으려고 한다. 왜냐하면 일본은 역사적 배경이 우리나라와 유사하고, 역사적으로 우리나라에 많은 영향을 미쳤으며, 운영상에 있어서

도 국가수준 교육과정의 시행이라든가, 현재 중학교 技術·家庭을 시행하고 있어 여러 면에서 시사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최근에 양국은 교육과정의 개정을 행하였으므로 현행과 개정 교육과정의 취지와 변경된 내용을 비교·분석하여 장점을 살펴보는 것은 시기적으로도 적절하며, 우리나라 가정과교육의 문제 해결과 실행에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러므로 한국과 일본의 실과(가정) 및 기술·가정교과의 해방 후 역사적 변천과정을 고찰하여 비교·분석함으로써 앞으로 우리나라 가정과교육의 목표 설정과 내용구성 및 실행상의 개선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본 비교연구에서 어려운 점은 현재 한국과 일본의 가정교과의 명칭과 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단일 교과명으로 일관성있게 비교하기 어렵다는 데에 있다. 즉 한국의 초등학교에서는 통합교과인 '실과' 내의 가정영역으로 이수되고 있으며, 일본에서는 단일교과로 '家庭'이 이수되고 있다. 한국의 중학교에서는 현재 가정과 기술·산업 두 교과가 일본에서는 단일교과인 技術·家庭이 이수되고 있다. 그러나 개정된 제7차 교육과정에서는 우리나라도 기술·가정을 이수하도록 하고 있어 양국은 교과명칭이 동일한 교과가 시행될 예정이다.

2. 선행연구 고찰

국윤옥(1996)은 '한국과 일본의 국민학교 실과 교육과정 비교 연구'에서, 첫째, 초등 실과 교육과정의 가정영역의 비교로 의·식·주생활 분야에 해당되는 목표와 내용, 시수 등을 비교·분석하였다. 그 결과, 시간 배당에서 일본은 우리나라 실과보다 家庭을 연간 860분을 더 이수하고 있는 것으로 발표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자가 조사한 바로는 일본이 연간 430분을 더 이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박순자, 2000). 목표면에서 일본은 목표 달성도 중요하지만 일상생활과 가정생활을 중시하는 마음과 태도를 기르고, 주변 생활문제를 해결하는 능력과 태도를 육성하는 것을 매우 중시하였다. 내용면에서는 의·식·주생활 내용으로 우리나라의 실과보다 일본의 家庭科는 시간 배당

이 많고, 매우 수준 높은 내용을 다루고 있다. 또한 영역별 내용마다 일상생활과 가정생활을 중시하는 인간성 교육을 대단히 강조하고 있으며, 조리 실습 후에 먹는 방법의 지도나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물건구입을 다시 생각해 하는 먼 등은 합리적이며 치밀한 계획성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였다.

金永順(1991)은 '한국과 일본의 중학교 가정과교육의 비교'에서 한국의 제5차 교육과정과 일본의 신 교육과정(1989년 개정)을 중심으로 비교하였다. 양국의 총 수업 시수에서 차지하는 가정과 이수시간의 비율을 학년별로 살펴보면, 당시 한국의 1학년은 7.7%, 2학년과 3학년은 11.8~17.6%로 나타났고, 일본은 1학년과 2학년이 6.7%, 3학년은 6.7~10.0%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양국의 시수 비교에서는 일본은 연간 35주 이상을 이수하고 단위시간도 중학교 50분으로 하고 있음을 고려해서 보아야 한다. 또한 우리나라의 제5차 교육과정에서는 일본 중학교 교과명칭과 동일한 기술·가정교과가 신설되어 1, 2학년의 선택과목으로 채택되었는데, 선택과목으로서의 남녀공수의 기술·가정의 교육내용을 학년별로 소개하였다.

한옥수(1993: 1994)는 일본의 소·중·고등학교 가정과교육의 실태에서 소·중·고등학교의 가정과 내용을 상세히 밝히고, 또한 일본 가정과교육의 변천 과정을 제2차 대전 전과 후로 나누어 소개하였으며, 전후의 가정과 내용의 단원 및 영역의 변천을 고찰하였다.

李秀禱(1994: 1996)는 한국과 일본의 제6차 고등학교 가정과 교과서의 현황과 문제점을 가족·보육영역을 중심으로 비교·분석하였다. 그 결과 영역별 구성비율에서 일본은 식생활 25.7%, 가족·가정경영 21.3%, 의생활 20.5%, 보육 14.9%, 주생활 11.1%의 순으로 나타났고, 한국은 가족·가정경영 26.1%, 식생활 22.5%, 의생활 21.0%, 주생활 14.8%, 보육 12.0%의 순으로 나타나 한·일 공동으로 食과 衣의 비율이 감소되고 가족·가정경영 비율이 증가한 것이 특징이라고 지적하였다. 한·일 양국은 영역간에 어느 정도 균형이 잡혀 있으며, 양국의 학생들의 관심은 가족관계와 식생활영역에 많았고, 주생활과 가정경영에는 관심이 적었다고 보고하였다.

上記의 선행연구들은 연구영역을 당시 초등 실과 중 가정영역에 국한시키거나 중등 가정과에 있어 당시 교육과정의 내용을 중심으로 비교하였으므로, 가

정과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역사적 변천을 초·중학교까지 포함시켜서 행한 연구는 아직 찾아볼 수 없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초등 실과(가정) 및 중학교 가정(기술·가정)과 교육의 역사적 변천 과정을 비교·분석함으로써 우리나라 가정과교육의 개선을 위한 시사점을 얻고자 하였다.

3. 연구문제

- 1) 해방 후(제2차 대전 후) 한국의 초등 실과와 일본의 家庭科教育의 변천을 비교·고찰한다.
- 2) 해방 후(제2차 대전 후) 한국의 중학교 가정과 교육과 일본의 技術·家庭科教育의 변천을 비교·고찰한다.

II. 연구방법

본 연구의 연구방법은 문서연구법으로 한국과 일본의 문헌을 수집하여 분석한 후 양국을 비교하기 위해 비교연구법을 적용하여 비교특성을 추출하였다.

비교교육 연구의 정당화는 첫째, 자기 나라 교육에 대한 보다 나은 이해, 둘째, 자기 나라와 외국의 교육 발전, 개선, 개혁, 셋째, 일반적으로 교육에 대한, 그리고 교육과 사회의 관계에 대한 지식, 이론, 원리의 개발, 넷째, 국제이해와 협조, 국제적인 교육문제와 다른 문제의 해결(주삼환, 1986)에 기여하는데 있다. 또한 비교연구는 인간을 둘러싼 여러 가지 문제를 검토하는데 있어 혹은 미래에의 결정에 유효한 평가를 내리는데 있어 不可缺의 것이라고 하였다(沖原豊, 石府實, 1977).

비교연구에 있어서 역사적 접근을 시도하는 이유는 어떤 現在의 事項이라고 하여도 100년정도의 年輪의 층을 고찰한다고 하는 기본적 처리를 하기 위해서이기도 하다. 어떤 사항이라고 하여도 과거로부터 어떤 작용을 받은 그대로 존재할 수는 없다. 과거의 어떤 사실의 단순한 保全是 反動的 保守이기도 하지만 새로운 것의 싹을 품은 과거라고 하면 이것을 伸張하여야 한다. 현재에 관하여 과거 속에 잠재된 그 원인을 추구하여 生成발전의 流轉된 모습을 구조분석하고, 장래에 관한 경향을 예측할 수 있는 것이다. 어떠한 나라의 사실도 그 나라만의 단독작업이나 기능으로 생성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비교연구의 基底로서 세계사에 기반을 둔 역사적 접근이 필요하게 된다(李忠元, 1983).

교육에 관한 비교 연구는 주로 현재라는 시점을 이동시키지 않고 共時的(synchronic)으로 조건이 유사한 나라의 교육을 비교하여 유사성·이질성 혹은 특징을 밝히려는 하는 것(廣島大學教科教育學研究會編 I, 1981)이다. 비교교육학의 성립이래 이 방면의 연구는 비약적으로 충실해졌지만 실과 및 기술·가정과교육에 관한 일본과의 비교연구는 매우 적어서(金永順, 日景彌生, 1991; 牧野カツコ, 李秀禧, 1994; 李秀禧, 牧野カツコ, 1996; 국윤옥, 1996), 연구자는 본 논문에서 실과(가정) 및 기술·가정과교육을 우리나라와 일본에 국한시켜서 비교하고자 한다.

본 비교연구에 있어 문헌의 범주는 한국과 일본이 근대교육이 시작된 이래 문헌을 참고로 하여 교육적 배경을 살펴 본 후, 해방 후(제2차 대전 후) 양국이 독자적인 교육과정을 마련하여 실시한 제1차 교육과정에서 제7차 교육과정까지의 문헌을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역사적 변천의 범주는 양국이 모두 독자적인 교육과정을 마련하여 시행한 제1차 교육과정부터 제7차 교육과정까지를 포함시키고 있다.

비교의 내용으로는 실과(가정) 및 기술·가정과 교육의 역사적 변천에 관해서 학교교육령 및 교육제도 변천에 부응한 가정교과의 변천사를 중심으로 비교·고찰하였다.

Ⅲ. 한·일 실과 및 기술·가정과교육의 변천

가정학 분야에서 역사적 연구를 이용하는 일은 그리 보편적이지는 않지만 그것이 중요한 존재로 간주되어 왔고 이 분야에 중요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Brown과 Paolucci(1979)는 「역사적인 전후관계를 통해서 가정학과 관련된 개념의 의미를 찾고 역사적인 과정 속에서 가정학 그것이 가지는 완전한 의미를 조사해야 한다.」라고 함으로써 가정학 연구의 역사적 접근방법의 중요성을 역설하였고, East(1980)도 가정학에 있어서 역사적 가치는 대단히 중요하다고 하였다. 즉 무엇이 발생했고 또 무엇이 발생하고 있는지를 안다면 현재에서 비판적 시각을 가질 수 있으며, 현재 사건을 역사의 추세 속에서 인과관계, 가능성 또는 이론 속에서 평가할 수가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라는 것이다.

1. 한국 가정과교육의 변천

1) 해방 후 초등 실과교육의 변천

초등 가정과교육의 시작과 변천과정을 살펴보면 실과교과는 1945년 광복 후 미군정 당국에 의해 국민학교 교과목으로 편제된 과목인 5개 과목 즉 도화, 공작, 요리, 재봉, 실과에서 비롯된다. 1954년 교육부령 제35호 공포로 도화, 공작, 조리, 재봉, 가사 등이 '실과'로 통합되어 현재 초등 가정은 실과교과의 한 영역으로 교육되고 있다.

제3차 교육과정기에는 실과 교육과정의 가정생활 영역과 공작생활 영역을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조정되었다(교육부, 1994). 당시 가정영역의 내용에는 식품·조리, 재봉·세탁, 주택 및 환경위생, 생활계획 등이 포함되어 있다.

제4차 교육과정기에도 실과의 성격을 교양교육으로서 부각시켜 한층 더 實事求是의인 성격을 분명히 하면서 실생활의 유용성을 강화하여 내용을 가정생활 중심의 4개 영역으로 통합·제시하였고, 또 소비자 교육을 강화하였으며 기본 생활 기능의 습득에 중점을 두었다.

제5차 교육과정기는 제4차 교육과정의 기본적인 틀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①기초적 생활기능의 정착, ②근로의 존중, ③근검절약의 실천 등 세 가지 강조점을 두어 개정방향을 설정하였다. 제1차~제5차 교육과정기까지는 실과를 4~6학년년을 대상으로 주 2~3.5시간을 이수하도록 하였다.

현행 제6차 교육과정기는 내용선정과 운영방법에 일대 전환을 시도하고 이론위주의 학습방법을 지양하였다. 실과의 효율적인 학습방법이 살아나도록 '하기'의 행동대상 중심체제로 바꾸었고, 실습이 행해질 수 있도록 내용영역을 통합하여 다루기, 만들기, 가꾸기 및 기르기, 전사하기 등의 4개 영역으로 나눈 것이 특징이다(교육부, 1992).

개정 제7차 교육과정에서는 국민 공통 기본 교육과정을 도입하여 초등 5~6학년에서의 실과와 중등 7~10학년의 기술·가정은 학교급에 따라 교과의 명칭이 실과와 기술·가정으로 분리되고는 있으나 이는 편제상의 표시일 뿐 실제로는 하나의 연계를 가진 교과로 하고 있다(교육부, 별책 10, 1998). 따라서 교과의 성격, 목표, 지도내용 등에서 6년간 연계성, 계열성, 통합성을 유지하여 편성하되, 학교급에 따라 수준을 달리하고, 고등학교 2, 3학년의 일반선택 과목과 심화선택 과목간에 수준의 차이를 두고 있다. 따라서 내용체계도 5~10학년 공통적으로 가족과 일의 이해, 생활기술, 생활자원과 환경의 관리의 세 영

역으로 통일하고 있다.

실과(기술·가정) 교육과정 개정의 이수 학년과 배당시간은 5, 6, 7학년에서는 주당 2시간, 8, 9학년에서는 주당 3시간으로 6차 교육과정과는 크게 다르다. 즉, 제6차 교육과정에서 초등의 3~6학년의 주당 1시간이,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5, 6학년의 주당 2시간으로 되었고, 현행 중학교 1, 2, 3학년(7, 8, 9학년)에서 가정과 기술·산업을 합쳐 주당 3시간이 이수되고 있으나 개정의 제7차 기술·가정에서는 7학년이 주당 2시간으로 감소되었고, 8, 9학년에서는 변화가 없다.

내용선정에서는 타 교과 내용과의 관련성에 유의하고, 타 교과에서 학습한 것을 응용하고 발전시킬 수 있으며, 실생활에 적용시킬 수 있는 내용으로 선정하며, 실험·실습 내용은 원리와 기능을 습득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또한 인성교육, 환경교육, 세계 이해교육, 보건교육, 성교육, 근로정신 함양교육, 안전교육 등 국가·사회적 요구 사항은 각 교과의 성격과 특성, 교수·학습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반영한다.로 제시하고 있다.

2) 해방 후 중학교 가정과교육의 변천

해방이 되면서 우리나라는 독자적인 교육과정을 마련하게 되었는데 초창기인 교수요목기에는 중학교와 고등학교가 구분되어 있지 않아 6년 과정으로 중학교 과정이 통합, 운영되었다. 교과목으로 실업이 있었는데, 실업에는 남학생의 경우, 농업, 공업, 상업과목이 있었고, 여학생의 경우는 가사, 재봉, 수예과목이 있었다(이연숙, 1997). 당시 여자 중학교에서 운영되었던 가사, 재봉, 수예과목의 비중은 시수면으로 보아 재봉>가사>수예 순이었다. 제1차 교육과정기에서 실업·가정과에 전 교과의 15%(현재의 2배)를 과하였던 것은 중학교를 졸업한 학생 중 진학하지 못하는 사람이 많아 졸업 후의 직업 또는 진로교육을 부가한 것으로 보인다.

제2차 교육과정기인 1960년대 후반에는 중학교 과정에 기술과가 신설되었다. 이 시기는 종래의 중학교 실업·가정교과(농업, 가정, 공업, 상업, 수산업) 외에 남자 기술과 여자 기술을 필수로 넣었다.

제3차 교육과정에서의 실업·가정과는 필수와 선택으로 구분되어 있다. 기술(남)과 가정(여)을 필수로 하여 1, 2, 3학년에서 이수하도록 하였고, 여학생에게는 남학생의 기술 대신 가정을 필수과목으로 부과하고, 가사를 선택으로 부과하였다. 가정, 가사의

성격과 특징에 관해서는 서로 다른 견해가 있으며, 지금까지도 여전히 이 두 교과의 성격 및 특징상의 차이에 관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이때부터 비롯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제4차 교육과정기에는 종래의 필수과목인 기술과 가정을 1, 2, 3학년에서 모두 이수하도록 하였던 것을 1, 2학년에서만 이수하도록 하였고, 선택과목인 가사도 3학년에서만 이수하도록 하였다. '기술'이 '생활기술'로 바뀌었으며, 기술과 가정을 통합하려는 시도가 있었지만 문제가 많이 제기되어 성과가 없었다.

제5차 교육과정기에는 중학교 실업·가정 교과의 목표가 부분 수정되었으며, 특히 실업·가정교과에 컴퓨터 교육영역이 첨가된 것이 특징이다. 기술·가정이 신설되어 성별 구분없이 1~2학년에서 한 과목을 택하도록 하였고, 농, 공, 상, 수산업, 가사는 종전과 같이 3학년에서 이수하였으나 시간이 축소되었다(문교부, 1988).

제6차 교육과정의 중학교 가정과는 남녀 공통 필수로 이수하도록 되었으며, 가사과목은 폐지되었다. 시수의 감소와 함께 내용상 많은 조정이 이루어졌으며, 실생활에의 유용성과 체험적인 교수·학습방법을 강조하였다. 가정과교육을 통하여 학생은 개인 및 가정의 안녕과 복지 증진, 궁극적으로는 사회의 복지향상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하였다(교육부, 1995). 제7차 교육과정에서는 내용 영역이 초등 실과의 3개 영역과 동일하며 이 3개 영역은 7~10학년에서도 이수하도록 편제되어 있어 초등 실과와 중등 기술·가정을 하나의 교과(교육부 [별책 2], 1997)로 연계시키고 있는 것이 큰 특징이다.

2. 일본 家庭科 및 技術·家庭科教育의 변천

제2차 대전 이후 일본의 가정과교육은 3단계의 큰 변화를 겪었다. 첫번째는 가정교과의 도입(1948년) 시기, 두번째는 소·중·고등학교에 있어서 남녀공수(1994년 시행)시기, 세번째는 사회과학 분야의 확대(2004년 시행) 시기로 규정지을 수 있다(石川實, 1999).

가정교과의 도입기에서는 1947년 학습지도요령 家庭科綱(시안)이 만들어지고, 1948년 소·중·고등학교에 가정교과가 도입되어, [소학교「家庭」(남녀공수), 중학교「직업(가정)」(선택), 고등학교「실업(가정)」(선택)]을 이수하도록 하였다. 1950년대 후반부터 중학교의「직업 가정과」가 산업화사회의 발전과

시대적 요청에 따라서 「技術·家庭科」로 변경되면서 男女別學의 기능의 강화로 방향이 전환되고 고등학교 「가정일반」은 적어도 여자만은 필수로 해야한다는 특성론에 기반을 둔 가정과 여자필수론이 강력하게 제기되면서 1960년에는 가정과 여자필수가 확정 실시되기에 이른다. 그 후에도 기본적으로는 중학교에서 가정과를 선택하는 것은 주로 여자였고, 고등학교에 있어서도 가정과는 여자의 선택과목이었다. 1956년에는, 보통과의 학생도 남녀 함께 예술과, 가정과, 직업에 관한 과목 중 6단위 이상을 이수하도록 하였는데, 여자의 경우는 가정과 4단위 이상을 이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였다. 1960년의 『고등학교 학습지도요령』에서 보통과의 여자도 「가정일반」의 이수를 필수로 하였다.

1970년의 개정에서 고등학교 가정일반의 男女別學 교육의 체제는 굳어져 가는데 반해서 활발하게 움직이는 남녀공동 이수의 동향은 더욱 활기를 띠기 시작하였다. 고등학교의 가정과의 남녀공수에 대한 노력은 ①가정과 교사 자신들의 적극적인 연구활동과 학회 및 교육대학협회 등의 움직임, ②가정과의 남녀공수를 권하는 회의 및 세미나와 토론회 서명운동, 각 여성단체들의 능동적인 활동, ③매스컴이나 참의원의원 회의에서, 국회의원들과의 정책토론을 시도하는 등 가정과 남녀공수 문제가 사회적인 이슈로 확대되고 일본 변호사협회의 여자만의 필수철폐의 유권해석과 교육과정의 개선요구를 제안하는 등 남성들까지도 이 운동에 동참하는 활동으로 구체화되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위의 ①번에 해당하는 활동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가정과에 관하여 남성을 이해, 설득시키는 일에는 아직도 부족하며, 그 이유로는 上記한 일본의 ②번과 ③번에서 보여주는 활동의 부족으로 인한 것이 아닌가 추측해 볼 수 있다. 이러한 움직임의 도화선은 1975년 국제연합이 제정한 '여성의 해'와 1985년 「국제연합 여성의 해 10년 세계회의」에서의 「여자 성차별 철폐운동」의 서명에서 그 명맥을 찾아야 할 것이다.

두번째 시기는 소·중·고등학교에 있어서 남녀공수(1994년)시기로, 소·중·고등학교 가정과가 남녀공수로 시행되고 있는 현재이다.

1989년도 개정된 현행 교육과정의 특징은 전면적으로 남녀 구별없이 가정과교육을 실시하는 데에 있다. 또한 1992년 소학교에 生活科가 신설되고, 저학년 때부터 생활인으로서의 기초교육을 실시하며, 귀

국자녀 및 외국유학생과의 유대문제 등을 다루고 있는 것도 우리나라와는 다르다. 중학교에서는 「정보기초」 과목에서 컴퓨터 교육과, 「가정생활」영역을 신설하여 남녀필수로 이수하도록 하였다. 1989년 3월 『고등학교 학습지도요령』에서 모든 학생은 「가정일반」, 「생활기술」, 「생활일반」중에서 한 과목을 이수하도록 하였고, 단위는 4단위로, 실시는 1994년부터 학년별로 진행하도록 하였다. 이 개정으로 인하여 일본의 가정과교육은 소·중·고 남녀필수로 되었다.

일본의 男女共修化의 배경을 살펴보면, 첫째, 여성의 사회적 진출의 증가로 가정내 남녀역할의 융합의 필요성이 요구되었고, 둘째, 남성 단신 부임자의 증가로, 남자도 혼자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키우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이다.

세번째 시기로는 2002년부터 실시(소학교 2002년, 중등 2004년부터)되는 신교육과정에서 특히 고등학교 가정과에서 사회과학 분야가 확대되는 시기이다.

新教育課程에서는 중앙교육심의회의 제언으로 여유 가운데 '특색있는 교육'을 전개하고 아동·학생에게 '살아가는 힘'을 육성할 것을 기본적인 목표로 하고 있다.

〈표 1〉에는 지금까지 기술한 가정과교육의 변천을 제1차~제7차 학습지도요령기로 구분하여 그 특징을 제시하였다.

일본의 소학교와 중학교 가정과교육의 변천을 學習指導要領(우리나라의 교육과정)의 변천별로 상세히 고찰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제2차 대전 후 소학교 家庭科教育의 변천

1947년(昭和 22년) 최초로 탄생된 교육과정(제1차 학습지도요령)에서 남녀공학의 소학교 5, 6학년의 家庭科에 관하여 「학습지도요령 가정과편」에서는 「가정생활을 영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기초로 하고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지금까지보다 더 나은 가정생활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가정생활에는 남녀 같은 책임이 있으며, 남자도 아동기 때부터 가정생활을 이해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기술하여 종래의 가정생활에 관한 교과·과목과는 전혀 다른 남녀공학의 새로운 가정과의 사고방식을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다.

新理念의 기반으로 출발한 家庭科였으나, 현장의 교사와 부모들 사이에는 남자에게 가정과를 학습시키는 것에 대한 혼란이 생겨 가정과 폐지론까지 나오기 시작하였다. 이에 1951년(昭和 26년) 「학습지도요령

〈표 1〉 제2차 대전 후 일본의 가정교교육의 변천 개요

연 도	법 령	내 용
●1945년(昭和 20년) 이후~현대		「새로운 성격과 내용의 가정과」 후기 단계의 시대
●1945년(昭和 20년)		많은 여자대학 신설, 가정학부 창설-가정학 부흥의 시대
●1947년(昭和 22년)	학습지도요령 일반편(시안)	·소학교에 「家庭科」라는 명칭이 탄생됨-소학교 5, 6학년 남녀공수 ·「학습지도요령 일반편(시안) 昭和 22년도」 고등학교 「家庭」신설
①가정교과 도입기	제1차 학습지도요령	·1948년: 가정과 교과목의 도입, [소학교 「家庭」(남녀공수), 중학교 「직업(가정)」(선택), 고등학교 「실업(가정)」(선택)] 이수하게 됨
i)1947년도	제2차 학습지도요령	·1956년: 여학생은 가정과 4단위 이상 이수하도록 함
ii)1951년도	제3차 학습지도요령	·1958년 중학교 「직업 가정과」→「기술·가정과」로 변경됨, 남녀별 학, 기능의 강화 ·고등학교 「가정일반」, 여자만 필수로 이수 ·1960년:「고등학교 학습지도요령」에서 보통과의 여자도 「가정일반」을 필수로 이수→가정과 여자 필수 확정 실시
iii)1958년도	제4차 학습지도요령	·1970년 개정에서 고등학교 「가정일반」 남녀공수 동향 활기 띠
iv)1968년도	제5차 학습지도요령	·가정과의 성격을 실천적·체험적 활동을 통해서 지식과 기능을 습득시킨 ·내용영역을 개정, 탄력적 지도가 가능하도록 함
v)1977년도	제6차 학습지도요령	·1989년:「고등학교 학습지도요령」에서 모든 학생은 「가정일반」, 「생활기술」, 「생활일반」중 택 1 이수, 단위 수 4단위 ·소·중·고 남녀필수로 됨
②소·중·고등학교에 있어서 남녀공수시기(1994년 시행)	제6차 학습지도요령	·소학교 「생활과」 신설, 중학교의 「정보기초」-컴퓨터교육 실시 「가정생활」영역 신설-필수로 이수토록 함.
vi)1989년도		·1992년
·1992년		·소학교 「생활과」 신설, 중학교의 「정보기초」-컴퓨터교육 실시 「가정생활」영역 신설-필수로 이수토록 함.
③사회과학 분야의 확대 시기(2002년부터 시행)	제7차 학습지도요령	소학교 2002년부터, 중등학교 2004년부터 실시되는 신교육과정에서 실시
vii)1998년도		

일반편」(제2차)을 발행하여, 교과를 네 가지의 큰 경험영역으로 분류하여, 가정과는 음악, 도화공작과 함께 「창조적 표현활동을 발달시키는 교과」에 포함시키고 이 3교과에 전체 시간의 20~25%를 배당하였다. 가정과의 지도시간은 주당 2~2.5시간으로 하였고 교과로서의 가정과의 학습지도요령은 제시하지 않았다. 「소학교에 있어서 가정생활지도의 지침」을 발행하여 아동의 학년단계에 따른 발달 특성과 지도목표를 명시하고, 가정과를 특설한 경우와 특설하지 않은 경우의 지도안의 예도 제시하였다. 문부성의 지도에 의해 가정과를 특설하지 않은 학교도 출현하여 이 시기의 가정교교육은 혼란스러웠다

가정교교육에 관해서 엄격한 논의가 있는 후 1956년(昭和 31년)에 「學習指導要領 家庭編」이 발행되었다. 이것은 1947년(昭和 22년)의 학습지도요령을 개정한 것으로 가정과의 위치와 성격을 명확히 하고 지

도내용을 5개 분야로 정리하였으며, 목표는 5개 항목으로 제시하였고, 학습내용은 가족관계, 생활관리, 被服, 食物, 住居의 5항목으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1958년(昭和 33년) 문부성은 전 교과의 학습지도요령을 개정(제3차)하였는데, 가정과의 목표는 4항목으로 분류하여 제시하였으며, 내용은 피복, 식물, 주거, 家庭의 4영역으로 나누어 5, 6학년별로 제시하였고 지도시간은 주당 2시간으로 하였다.

1960년에는 문부성이 학습지도요령을 해설한 「小學校 家庭指導書」를 발행하여, 학부모에게 家庭科에 대한 이해와 협력을 구하는 방안과, 아동의 지역과 가정환경을 이해하기 위해 실태조사의 실시방법 등을 기술하고, 교사의 자작 자료를 추구하는 노력도 보여 주었다. 1963년에는 전국 소학교 가정과연구회가 발족되어 전국적으로 연구의 진전을 보였다.

1967년 教育課程審議會는 家庭科에 ①교과의 목표

를 명확히 할 것, ②내용을 기초적 사항으로 정선하고 지도의 중점을 명확히 할 것, ③타 교과와의 관련을 배려할 것, ④중학교의 技術·家庭科의 관련을 고려할 것 등을 포함하여 1968년 학습지도요령 개정(제4차)이 행해졌으며 내용은 종전과 같다.

1976년 교육과정심의회는 가정과를 「소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통해서 실천적, 체험적인 학습을 행하는 교과로서의 성격을 한층 명확히 하도록 내용을 정선하고, 그 구성을 개선한다.」라는 답신을 받아들여 1977년 학습지도요령을 개정하였다(제5차). 내용 영역을 被服, 食物, 住居와 家族의 3개 영역으로 개정하였고, 교사의 창의와 지역의 실태를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제시하였다.

1986년 교육과정심의회는 소학교 家庭科에 대해서는 「타 교과와의 관련, 중학교의 技術·家庭科의 이수방식과의 관련을 고려해서 내용을 개정할 것」 등의 답신을 받아들여 1989년 개정된 학습지도요령(제6차)이 발표되었고 1994년부터 가정과는 소·중·고 남녀공수로 시행되고 있다(文部省, 1989).

1998년~1999년에는 학습지도요령의 개편(제7차)으로 가정과의 분야별 통합과 새로운 분할이 이루어져 의·식·주 영역을 통합하여 8개 항목으로 내용을 제시(문부성, 1999)하는 변화를 보였다.

戰後 중학교의 가정과는 1960년대부터 技術·家庭科으로 이수되어왔으므로 技術·家庭科교과의 변천에서 중학교 가정과의 변천을 기술하기로 한다.

2) 제2차 대전 후 중학교 技術·家庭科教育의 변천
일본의 技術·家庭科는 1950년대(昭和 30년대)에 들어오면서 과학기술교육의 진흥을 위한 방책으로 당시의 「직업·가정과」를 1958년에 「技術·家庭科」로 개칭하고 1962년부터 시행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초기 技術·家庭科에서는 남녀공통학습을 폐지하고 공업을 중심으로 농업, 가정, 도화공작으로 다루어왔던 생산적 기술에 관한 부문을 합쳐, 남자에게는 공업 내용을 중심으로, 여자에게는 가정 내용을 중심으로 과학기술에 관한 교육을 몸에 익히기 위한 교과로서 실천활동을 통해서 학습시키는 것으로 하였다. 가정과의 내용도 기술중심으로 구성되고, 가정경제, 가정관리, 가족의 내용은 분산되거나 소멸되었다. 수업시수는 각 학년 모두 주당 3시간이었다. 선택과목으로서 가정과는 각 학년에 주당 2시간씩 편제되어

있었는데, 내용은 피복, 食物, 보육·간호, 주거·가정경영의 4개 영역이었다.

1969년 문부성은 중학교 학습지도요령을 개정하였다. 이 개정의 요점은, 목표에 있어서는 생활에 필요한 기초적 기술에 관한 실천적 학습을 중심으로 하고, 교과의 성격을 명확히 하며, 내용에 있어서는 기본적 사항을 정선하고 그 범위와 정도를 명확히 하는 것이었다. 수업시간 수는 각 학년 주당 3시간으로 종래와 같이 남자에게 더 적합한 것과 여자에게 더 적합한 것의 2가지 계열로 구성되었다. 선택으로 설정된 가정과의 내용은 피복, 食物, 주거, 보육의 4개 영역이었다.

1970년대(昭和 50년대)에 들어오면서 고등학교 진학률이 90%를 넘고, 塾¹⁾ 등의 학교 외 교육도 성행하여 아동·학생에 대한 뾰족한 일정의 주입식 교육의 실태가 문제가 되었다. 한편, 국제사회에서는 1976년~1986년까지 10년 동안을 「국제연합 여성의 해 10년」으로 정하여 「평등, 발전, 평화」를 목표로 하고 있었다. 이러한 변화에 부응하여 문부성은 1977년(昭和 52년) 학습지도요령을 개정하였는데, 技術·家庭科는 실천적·체험적으로 학습하는 교과로서의 성격을 한층 명확히 하고, 남녀의 이수방법의 관련을 한층 밀접하게 하였으며, 지역과 학교의 실태 및 학생의 필요에 부응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는 기본방침으로 개정하였다. 이 방침은 우리나라 제6차 교육과정기의 취지에도 반영되어 있다. 技術·家庭科 성립이래 행해져왔던 남자에게 더 적합한 것과 여자에게 더 적합한 것의 2개 계열의 학습방법을 폐지하여 어느 정도 규제는 있지만 기술계열, 가정계열을 남녀가 학습할 수 있도록 선택적으로 탄력성을 부여한 것은 큰 변화이다. 이 당시의 내용은 17개 영역으로 분류되어 3년 동안에 남자는 기술계열에서 5개 영역, 가정계열에서 1개 영역을 선택하고 나머지는 어느 영역이든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하여 7개 이상 영역을 이수하도록 하였다. 여자의 경우는 가정계열에서 5개 영역, 기술계열에서 1개 영역, 나머지는 자유선택으로 7개 이상의 영역을 이수하도록 하였고, 이들의 선택권은 학교에 부여하였다. 수업 시수는 1, 2학년은 주당 2시간, 3학년은 주당 3시간으로 종래보다 감소되었다.

1984년 문부성은 「가정교육에 관한 검토회의」를

1) 사설교육기관(학원)을 의미한다.

발족하였고, 1985년에는 「남녀고용 기회균등법」이 성립되어 같은 해 「여자차별 철폐조약」을 추진하였다. 1986년 중간보고에서 「가정을 둘러싼 환경과 사회의 변화 등에 대응해서 남녀가 협력해서 가정생활을 구축해 갈 것과, 생활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남녀에게 습득시킨다.」는 관점을 배려하여 그 내용 및 이수방법을 개선하여 1989년 개정에서 소·중·고등학교 가정과가 남녀공수로 이수하게 되었다(武井洋子の 3인, 1997). 이와 같이 일본은 여성에 대한 국제적인 흐름과 변화를 시기 적절히 이용하여 중등 가정과 남녀공수 시행을 이루어낸 점이 우리와는 다르다고 보겠다.

1989년에 개정된 현행 技術·家庭교과는 필수교과 중의 하나로, 기술분야와 가정분야로 나누어 목표를 기술하고 있으며, 각 분야별 필수영역과 선택영역으로 구분하여 총 11개 영역으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다.

수업 시수는 1학년과 2학년은 연간 70시간(주당 2시간), 3학년은 70-105시간(주당 2~3시간)을 이수하도록 하고 있다. 현행 技術·家庭科 教育은, 바른 기술관을 양성함으로써 풍부한 인간형성을 궁극적 목적으로 하고, 생활에 필요한 기술습득을 통해서 연구, 창조하는 능력 및 실천적인 태도의 육성과 단편적인 지식이나 단순한 기능의 습득에 그치지 않고, 그것들을 활용함으로써 논리적인 사고력과 실천적인 창조력을 기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행 중학교의 가정제원은 「家庭生活」, 「食物」, 「被服」, 「住居」, 「保育」의 다섯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家庭生活」, 「食物」영역은 남녀 필수영역으로 하고 있고, 그 외 세 영역은 선택영역으로 하고 있다(文部省, 1995).

1998년 고시된 개정 技術·家庭에서는 교육내용을 생활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재편하고, 보다 한층 종합적으로 학습지도를 전개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 현행의 11개 영역을 기술분야는 「A. 기술과 물건제작」 및 「B. 정보와 컴퓨터」로, 가정분야는 「A. 생활의 자립과 의식주」 및 「B. 가족과 가정생활」로 통합하였다(文部省, 1998, 中學校學習指導要領). 기술분야의 A. 기술과 물건제작의 세부 내용에는 공업적 기술뿐만 아니라 작물재배도 포함시키고 있다.

技術·家庭교과는 가정과와 마찬가지로 인간의 생활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내용이 광범위하고, 머리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손도 사용해서 조화를 이룬 학습활동을 전개하는데 특징이 있으며, 技術·家庭科의

목적은 학생의 주체적인 실천활동을 통해 문제해결력을 기르는데 있다(富山朝司, 1990). 남녀공수로 시행되는 일본의 技術·家庭科의 技術은 우리나라와 같은 '생산기술'이 아니라 '생활기술'을 교육하고 있어 생활에 기반을 둔 그러한 교육이 家庭과 技術을 연결시키고 있다고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일본에서도 기술·가정교과를 분리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3. 해방 후 한·일 실과 및 기술·가정교육의 변천 비교

우리나라는 교수요목기를 거쳐 교육과정의 성립되고 제1차에서 제6차까지 6차례의 개정으로 교과 명칭과 내용구성의 변화를 거쳤으나 초등은 실과라는 통합교과, 중등은 '가정'이라는 독립교과로 이수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우리나라의 초등 가정은 실과교과 속의 가정영역으로 존재하며, 실과는 1955년 제1차 교육과정기에 초등학교 정식교과 중의 하나로 정해져 남녀별학으로 하였으나 제2차 교육과정기부터 남녀공수로 되었다. 중학교 가정교육은 제1차 교육과정기에는 '가정생활' 영역이 필수로 다루어지기는 하였으나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제2차 교육과정기로 1963년 이후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중학교 가정 남녀공수는 제6차 교육과정기인 1995년에 와서 시행되었다.

일본의 초등 家庭科는 1947년 남녀공수의 교과로 5, 6학년에 지정됨으로써 일부 교사와 학부모의 반대로 혼란기를 겪기도 하였으나 지금까지 존속하고 있어 초등 가정과의 기반은 확고히 다져졌으며, 초등 家庭에서는 철저한 생활교육을 시키고 있다는 점이 우리나라와는 다르다.

일본에서는 제1차 학습지도요령이래 소·중·고등학교가 연계되어 가정과가 이수되고 있다. 일본의 가정과는 1945년을 경계로 가정과 후기단계에 많은 여자대학이 창설되어 가정과 및 가정학 부흥의 시대를 맞이한다. 1947년 학습지도요령이 마련되면서 1948년 가정 교과 도입기를 맞아 소학교에 「家庭」이 남녀공수로 탄생하고, 중학교에서는 「직업(가정)」, 「선택」, 고등학교에서는 「실업(가정)」, 「선택」을 이수하게 되었다. 중학교의 가정과는 1950년대 후반(1958)에 중학교 「직업 가정과」가 「技術·家庭」으로 변경되어 현재까지 「技術·家庭」으로 이수되고 있다. 1960년대에는 고등학교 「가정일반」이 여학생에게 필수로 되었고, 1989년에는 소·중·고등학교 모두 가정이 남녀

공수의 필수과목으로 되었다. 1992년에는 소학교 1, 2학년에 통합교과 「생활과」가 생겨 우리나라의 「슬기로운 생활」과 같이 실과(가정) 내용을 부분적으로 다루고 있으며, 1998년~1999년(소학교 2002년, 중등학교 2004년부터 시행)에 개정된 교육과정에서는 특히 고등학교 가정과에 사회과학 분야가 확대되는 변화를 보인다.

그러나 일본의 가정과는 1994년이래 소·중·고등학교가 일제히 남녀 공통 필수과목으로 되었고, 중학교에서는 1962년이래 技術·家庭 교과가 이수되고 있지만 두 분야를 모두 인정하면서 11개 영역 중 두 교과와 가장 핵심 영역인 기술분야의 A.목재가공 및 B.전기과, 가정분야인 G.가정생활 및 H.食物의 4개 영역은 필수로 이수시키고, 나머지 7개 영역에 대해서는 학교 재량에 맡기고 있으며, 또한 소·중등 가

정교과교육에 「가정생활」 영역을 반드시 이수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이 우리나라 제7차 교육과정에서 이수될 기술·가정 교과의 성격과는 다르다.

수업 방법면에서, 일본의 가정교과교육에서는 실험·실습 위주의 체험학습을 많이 실시하여 생활에 필요한 기술의 습득과 능력을 키우고 있다. 수업 시수면(연간 약 70시간 : 연간 35주, 주당 2시간)에서는 우리나라와 크게 다를 바 없는데도 실험·실습 위주의 교수법 즉 체험위주의 형태로 수업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 수업 시수의 확보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는 교사의 수업방법에 대한 관심과 노력 및 시설확충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우리나라 제7차 교육과정 실과지침에서도 실험·실습위주의 수업을 제시하고 있으나 그것이 정착되기 위해서는 시설확충이 우선되어야겠으며 교사자신의 실과(가정)교과에 대한 사고

〈표 2〉 해방 후(제2차 대전 후) 가정교과교육 변천의 한·일 비교

한 국	일 본
1) 1955-1963년: 제1차 교육과정기 · 농업생활, 가정생활, 공업생활, 상업생활, 어촌생활 전 영역 필수(선택)	● 1945년(昭和 20년) 이후~현대: 「새로운 성격과 내용의 가정과」 후기 단계의 시대 ● 1945년(昭和 20년): 많은 여자대학 신설, 가정학부 창설-가정학 부흥의 시대 ● 1947년(昭和 22년): 소학교에 「가정과」라는 명칭이 탄생됨-남녀공수 「학습지도요령 일반편(시안) 昭和 22년도」제3장 補遺에서 고등학교 「家庭」신설 ① 가정교과 도입기
2) 1963-1973년: 제2차 교육과정기 · 1학년 남학생: 농업, 공업, 상업, 수산업 종합과정 · 2, 3학년 선택: 농업, 공업, 상업, 수산업 과정 · 1, 2, 3학년 여학생: 가정과정 · 1969년 부분 개정으로 기술(남)과 기술(여)가 1, 2, 3학년 필수로 되고 농, 공, 상, 수산업, 가정이 2, 3학년 선택으로 됨.	· 1948년: 가정과 교과목의 도입, [소학교「家庭」(남녀공수), 중학교 「직업(가정)」(선택), 고등학교 「실업(가정)」(선택) 이수하게 됨. · 1956년: 여학생은 가정과 4단위이상 이수하도록 함. · 1950년대 후반부터 중학교 「직업 가정과」→「기술·가정과」로 변경됨, 남녀별화, 기능의 강화 고등학교 「가정일반」 여자만 필수로 이수 · 1960년: 「고등학교 학습지도요령」에서 보통과의 여자도 「가정일반」을 필수로 이수→가정과 여자 필수 확정 실시 · 1970년 개정에서 고등학교 「가정일반」 남녀공수 동향 활기 띠 ② 소·중·고등학교에 있어서 남녀공수 시기(1994년 시행)
3) 1973-1981년: 제3차 교육과정기 · 기술(남): 1, 2, 3학년 이수, 필수 · 가정(여): 1, 2, 3학년 이수, 필수 · 농, 공, 상, 수산업, 가사: 2, 3학년 이수 선택	· 1989년: 「고등학교 학습지도요령」에서 모든 학생은 「가정일반」, 「생활기술」, 「생활일반」중 택 1 이수, 단위 수 4단위 · 1992년: 소학교 「생활과」 신설, 중학교 「정보기초」-컴퓨터 교육, 「가정생활」영역 신설-필수로 이수토록 함. ③ 사회과학 분야의 확대시기(초등 2002년, 중등 2004년 시행) · 2004년 신교육과정에서 실시
4) 1981-1987년: 제4차 교육과정기 · 생활기술(남): 1, 2학년 이수, 필수 · 가정(여): 1, 2학년 이수, 필수 · 농, 공, 상, 수산업, 가사: 3학년 이수(선택)	
5) 1987년-1995: 제5차 교육과정기 · 기술, 가정, 기술·가정 중 택 1, 1-2학년 이수 · 농, 공, 상, 수산업, 가사 중 택 1: 3학년 이수 · 필수와 선택의 구분이 없어짐	
6) 1995-2000년: 제6차 교육과정기 · 가정, 기술·산업이 독립교과로 변경됨 · 가사가 가정으로, 농, 공, 상, 수산업이 기술·산업으로 통합 · 필수와 선택의 구분이 없어짐	
7) 2000년-: 제7차 교육과정기 · 가정, 기술·산업이 통합되어 기술·가정이 됨.	

방식이 전환되어야 기대할 수 있으리라 보아진다.

前述한 바와 같이 해방 후(제2차 대전 후) 한국과 일본의 가정과교육은 해방 직후 양국 모두 미국의 신교육지침을 따랐으나 일본은 1947년부터 독자적인 교육과정을 설정하여 교육과정 개정의 연도는 다르나, 한·일 양국 모두 제1차부터 7차례의 개정을 거쳐 현행 제6차, 개정 제7차 교육과정에 이르고 있다.

〈표 2〉에는 해방 후 한·일 가정과 교육과정의 변천을 요약·비교하였는데, 우리나라는 제1차~제7차 교육과정기로 구분하여, 가정을 실시하고 있는 중학교를 중심으로 개정의 특징을 이수학년 및 이수과목(필수와 선택과목) 등으로 요약하였고, 일본은 가정과 후기 단계를 가정학 부흥의 시대로 명명하고, 개정의 특징에 따라 ①가정교과 도입기, ②소·중·고등학교에 있어서 남녀공수시기, ③사회과학 분야의 확대시기로 구분하여 개정의 특징을 요약하여 제시하였다.

IV. 요약 및 결론

가정과교육의 개선과 가정교과의 위치를 굳건히 하기 위해 보다 나은 가정과교육의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국과 일본의 실과 및 가정과교육의 역사적 변천을 비교·고찰하여 얻은 결과는 다음과 같다.

한국과 일본의 가정과교육의 역사적 변천을 고찰해 보았을 때, 가정과교육의 시작은, 양국 모두 서구의 문물을 받아들이면서 시작되었는데, 일본에서는 明治維新(1870년)과 함께, 우리나라에서는 갑오경장(1894년)을 계기로 시작되어 일본이 20여년 앞선다.

해방 후 양국의 가정과교육의 역사적 변천내용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해방 후 한국의 가정과교육은, 초등은 '실과'라는 통합교과 속에 가정영역으로 포함되었고, 중등은 여학생만을 대상으로 하는 교과로 정착하여 제5차 교육과정기까지 계속되었다. 일본은 1947년 사실상 가정과의 남녀공학이 제도상으로 보장받게 되었으나 소학교 5, 6학년에서만 실행되는데 머물렀다.

2. 한국의 중등 가정과는 제5차 교육과정기(1980년대)까지 여자만의 필수교과로 고정되었으나, 일본은 1950년대 후반부터 중학교의 「직업 가정과」가 「技術·家庭科」로 변경되면서 남녀별학의 기능의 강화에로 방향이 전환되고 고등학교 「가정일반」은 여자만의 필수 이수형태를 출현시켰다.

3. 한국은 제6차 교육과정기(1995년 시행)에 와서 중학교 가정과 남녀공수가 되었고, 일본은 1989년에 개정(1992년 시행)된 현행 교육과정에서 소·중·고등학교 필수로 남녀구별없이 가정과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4. 한국에서는 제7차 교육과정에서 초·중등을 연계하여 초등 5, 6학년은 실과, 중등 7~10학년은 기술·가정이 편제되어 고등학교 1학년까지 남녀공수로 시행될 예정이다. 일본에서도 1998-1999년에 교육과정이 개편되어 교과명칭에는 변화가 없으나 내용면에서 통합을 시도하였다.

해방 후 한국과 일본은 독자적인 교육과정을 시행하였으나 상기와 같이 그 배경과 변천과정에서 유사한 점이 많이 있다. 그러나 차이점은 일본의 소학교는 家庭이 이수되고 있고, 중학교는 技術·家庭의 시행(1962년 이후)되고 있으며, 소·중·고등학교에서 가정교과가 필수로 되어 남녀공수(1994년 이후)로 시행한 것이 한국보다 앞선다는 데에 있다.

이상에서 양국의 가정과교육은 출발 당시는 상황이 유사하였으나 현재 일본의 가정과교육은 소학교에서부터 중, 고등학교로 연계되어 있어 교과로서의 자리매김이 튼튼하다. 또한 가정과를 소·중·고등학교 필수로 하여 남녀공수로 시행하고 있다.

또한 일본은 소학교에 家庭교과를 두어 생활교육 중심으로 교육하고 있어 그들의 생활습관에서 긍정적인 효과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으로는 가정과교육이 생활교육에 치중하여 철학적 배경이 부족하다고 일컬어지기도 하나, 일본의 생활교육에 중점을 둔 철저한 가정과교육은 우리나라의 초등 실과교육의 개선방향에 시사점을 준다. 우리나라에서도 초등의 가정영역은 가정생활에 기반을 둔 생활교육을 철저히 시키는 것이 실천교과로서의 실과의 목표인 자립적인 생활인을 육성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참 고 문 헌

- 국윤옥(1996), 한국과 일본의 국민학교 실과 교육과정 비교 연구, 한국교육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교육부(1992), 제6차 교육과정(교육부 고시 제 1992-11호).
 교육부(1994), 국민학교 교육과정해설 I, 대한 교과서(주).
 교육부(1995), 중학교 가정과교육과정해설, 교육부고시

- 1992-11호.
- 교육부(1997) 초등학교 교육과정(교육부 고시 제 1997-15호) [별책 2].
- 교육부(1998), 초·중등학교 교육과정(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 제7차 교육과정(교육부 고시 제 1997-15호, 실과(기술·가정)교육과정 [별책 10].
- 문교부(1988), 중학교 실업·가정과 교육과정해설(문교부 고시 제 87-7호).
- 박순자(2000), 한국과 일본의 실과 및 기술·가정과교육의 비교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유태명(1996), 21세기 가정학의 새로운 패러다임, 대한가정학회 49차 추계학술대회.
- 이연숙(1997), 가정과 교수법, 서울:신광출판사.
- 李忠元(1983), 比較教育學의 研究方法論, 서울:東亞學研社, 177-178.
- 주삼환(1986), 比較教育學入門, 서울:星苑社.
- 한옥수(1993), 일본에 있어서의 가정과교육의 실태,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5(1), 1-16.
- 한옥수(1994), 일본의 가정과교육,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6(1), 95-102.
- Brown, M. M. and Paolucci, B.(1979), Home Economics: A Definition Alexandria VA: AHEA.
- East, M.(1980), Home Economics-Past, Present, Future, Boston: Allyn and Bacon, Inc.
- 沖原豊, 石附實(1977), 比較教育學と教育政策, 南窓社, 59.
- 石川實(1999), 일본 가정과교육의 현황과 발전방향, 한국가정과교육학회 초청강연 자료, 1-7.
- 金永順, 日景彌生(1991), 韓國と日本における中學校家庭科教育の比較, 家庭科教育, Vol. 65, 51-55.
- 武井洋子, 田部井惠美子, 青木幸子, 池崎喜美惠(1997), 家庭科教育, 東京:學文社.
- 廣島大學教科教育研究會編(1981), 教科教育學 I, 建帛社.
- 富山朝司(1990), 技術·家庭科における教育評價, 家庭科教育 64(10), 29.
- 牧野カツコ, 李秀禧(1994), 日本および韓國の高等學校家庭科教科書現狀と問題點, 「年報·家庭科教育研究」第19・20集, 1-10.
- 李秀禧·牧野カツコ(1996), 日本および韓國の高等學校家庭科教科書現狀と問題點(第二報), 「年報·家庭科教育研究」第22集, 31-40.
- 文部省(1989), 小學校指導書 家庭編, 大藏省印刷局.
- 文部省(1995), 中學校指導書 技術·家庭編, 開隆堂出版(株).
- 文部省(1999), 小學校學習指導要領解説-家庭編, 開隆堂出版(株).
- 文部省(1998), 中學校學習指導要領, 東京:大藏省印刷局.